

-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 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 3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 2 내가 너희를 젓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시름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 11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2:15 신령한 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를 가리킨다.

3:5 아볼로 그는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이다. 그는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은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3:5 사역자

1. 사역자(헬, 디아코노스)는 원래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종(마 20:27), 사역자(롬 13:4), 일꾼(롬 16:1) 등으로 번역된다.
2. 본 절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리킨다.

3장 요약정리

본장은 첫째, 인간지도자들의 공명심에 의한 절대화. 둘째, 교회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집을 짓는 건축자에 불과함. 셋째, 모든 교인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됨을 가르침. 넷째, 바울은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이임을 주장한다.